

광운대학교

2026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

I. 회의 개요

- 일 시 : 2026년 7월 22일(수요일) 10:30~11:30
- 장 소 : 화도관 202-1호
- 출석 현황
 - 참석 의원(7명)
 - 이옥진, 강성률, 홍윤기, 소민광, 장석현, 이재현, 반중혁
 - 불참 의원(5명)
 - 김형석, 박철수, 이일재, 안준현, 이제호

II. 안건

1.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(안)
2.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(안)
3. 대학원 종합시험에 관한 내규(舊 대학원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시행세칙) 개정(안)
4.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(舊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시행세칙) 개정(안)
5.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(舊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) 개정(안)

III. 회의 내용

1. 성원 보고

- 의장이 간사로 하여금 성원 보고를 하도록 요청하여 간사가 총 12명 중 7명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.

2. 개회 선언

- 의장이 회의 개회를 선언하다.

3. 회의결과

가. 1호 안건 :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(안)

- 의장 : 1호 안건 상정
- 보고자 : 보고자(김문석 교무처장)가 안건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하다.
- 소민광 : 단과대학 및 학과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문항이 포괄성과 중립성을 갖추었는지 질의하다.
- 보고자 : 인근 대학의 유사 학과명을 최대한 조사하여 가능한 모든 경우를 선택지에 포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정 학과명을 유도하는 표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변하다. 다만, 단과대학 및 학과에 따라 조사 범위는 상이했다고 부연하다.
- 이옥진 : 참빛인재대학 스포츠상담재활학과 소속 교수임에도 참빛인재대학 명칭 변경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음을 밝히며, 참빛인재대학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된 것인지 주관부서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다.
- 의장 : 이옥진 의원의 의견을 주관 부서에 전달하는 것을 포함한 1호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사를 묻고 각 의원들이 거수로 찬반 의사를 표하다.(찬성 6명, 기권 1명)
- 의장 : 심의결과 선언
 - 출석의원 6명 찬성, 1명 기권으로, **원안대로 의결하다.**
 - 다만 참빛인재대학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, 소속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주관 부서(교육지원팀)에서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다.

나. 2호 안건 :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(안)

- 의장 : 2호 안건 상정
- 보고자 : 보고자(김정현 교학부장, 김태훈 과장)가 안건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하다.
- 소민광 : 학위취득 필수요건에서 외국어시험을 폐지하게 된 사유를 질의하다.
- 보고자 : 외국어시험 때문에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여 서울 소재 일반대학원을 전수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대학에서 외국어시험을 졸업요건으로 두지 않고 있었고, 재학생 수요조사에서도 외국어시험 폐

지 의견이 모아져 외국어시험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답변하다.

○ 의장 : 2호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사를 묻고 각 의원들이 거수로 찬반 의사를 표하다.(찬성 7명, 반대 없음)

○ 의장 : 심의결과 선언

- 출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다.

다. 3호 안건 : 대학원 종합시험에 관한 내규(舊 대학원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시행세칙) 개정(안)

○ 의장 : 3호 안건 상정

○ 보고자 : 보고자(김정현 교학부장, 김태훈 과장)가 안건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하다.

○ 홍윤기 : 학위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일반대학원의 추세인지 질의하다.

○ 보고자 : 최근의 추세라기보다 본교 일반대학원의 학위취득 요건이 타 대학에 비해 엄격한 편이라고 답변하고, 논문 제출 이외의 요건까지 지나치게 엄격해 학생들의 부담이 커 이를 개선하고자 했음을 밝히다.

○ 홍윤기 : 학위취득 요건을 완화하려는 취지를 살려 종합시험 과목을 좀 더 축소할 것을 제안하다.

○ 보고자 : 지도교수의 수업 외에 다른 교수나 전공의 수업도 수강할 수 있도록 종합시험 과목수를 지나치게 줄이지 않았다고 답변하다.

○ 이옥진 : 외국어시험은 형식적이고 불필요하지만, 추후 박사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어학능력은 필요하므로 공인 외국어시험성적표는 제출하도록 할 것을 건의하다.

○ 보고자 : 입학할 때 이미 어학능력에 대한 검증을 거친 학생들이기 때문에 졸업요건에 꼭 넣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음을 밝히다.

○ 장석현 : 타 대학원의 경우 외국어시험을 보더라도 토익을 보고, 보통 외국어 필수 수업을 수강하는 식이라며, 그와 같은 방식으로 변경된다면 어학능력을 검증하면서 졸업도 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다.

○ 강성률 : 입학할 때도 면접시험으로 간소화하는 등 어학능력 검증보다는 전공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추세이므로 외국어시험을 폐지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하다.

○ 의장 : 자문결과 선언

- 이상과 같이 질의 및 자문을 하고 안건을 종결하다.

라. 4호 안전 :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(舊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시행세칙) 개정(안)

- 의장 : 4호 안전 상정
- 보고자 : 보고자(김정현 교학부장, 김태훈 과장)가 안전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하다.
- 의장 : 4호 안전에 대해 특별한 이견 없음을 확인하다.
- 의장 : 자문결과 선언
 - 이상과 같이 질의 및 자문을 하고 안전을 종결하다.

마. 5호 안전 :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(舊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) 개정(안)

- 의장 : 5호 안전 상정
- 보고자 : 보고자(김정현 교학부장, 김태훈 과장)가 안전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하다.
- 의장 : 5호 안전에 대해 특별한 이견 없음을 확인하다.
- 의장 : 자문결과 선언
 - 이상과 같이 질의 및 자문을 하고 안전을 종결하다.

4. 폐회 선언

- 의장이 회의 폐회를 선언하다.

대학평의위원회 의장 강성률 (서명)

대학평의위원회 부의장 홍윤기 (서명)

평 의 원 김형석 (서명)

박철수 (서명)

이옥진 (서명)

이일재 (서명)

소민광 (서명)

장석현 (서명) 

안준현 (서명)

이제호 (서명)

이재현 (서명) 

반중혁 (서명) 